朝鮮日報
朝刊夕刊 今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存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 社說 朝鮮人口問題(三)
### 人口問題是非

一

人口問題에關한常識的見解가 眞正한科學的事實과 얼마나顚倒되어잇는가? 資本自身의膨脹力의發展을拘束함에서 일어나는資本主義末期의病症이 하나둘이아니나그中에人口過剩의憂患이 얼마나 오늘날資本主義國家를危脅하는가? 저희들의一大難關인 이問題를엇더케解決할바고하면비는가? 이모든點은 이미累述하엿거니와 常識的解決策의重要한項目으로 殖民地開拓과移民獎勵를支持하고잇슴은 帝國主義者들의常套手段일것이다 日本內地의人口 百萬式增加라는 그럴듯한誇張은 朝鮮當局으로하야금 移民募集에直接干與하게하야年度豫算中新規計劃으로 編入할理由?를주엇다從來의移民은東拓及不二興業을시켜實行해왓스나매우不滿한點이만흠으로 인제는當局에서積極的으로巨額의獎勵補助費를支出하야 移民計劃을更新해본다고한다

二

이問題에關하야는 本紙에屢次警告한바잇섯거니와 朝鮮은果然얼마나 이러한移民群을包容할餘裕가잇는지 吾人은다시統計數字를빌어證明할야고한다 朝鮮內의日本人口로말하면一九○九年에一四六,一四七人이든것이一九二五年에는四二四,七四○人곳十六年동안에約三倍나激增하엿스며 朝鮮人口로말하면一二,九三四,三八二人이든것이一八,五四三,三二六人으로 가는十六年동안五百六十餘萬人이나增加되엇다 이는勿論 過去의不充分한統計調査로因하야 正確한數字라고는할수업스나 日本人의移住가 얼마나急激히增加하엿스며 朝鮮人의自然增加도또한얼마나만흔가를가르친다 日本人口의增加가 비록急激하다하나 朝鮮人口의自然增加率과比較할때에는 몰오히떨어짐을볼수잇다 最近一九二五年의두가지人口의出生率과死亡率을比較해볼진대 日本內地人口의出生率은三四、九 死亡率은二○、三이오朝鮮人口의出生率은三八、四死亡率은二○、七로그自然增加率은一四、六에比하야一三、一이나만흠을斟酌할수잇다 또가튼朝鮮內에잇서서도朝鮮人의自然增加率이日本人의그것보다 훨신超過함은朝鮮人人口의增殖力이얼마나만흠을가르친다

三

이와가티朝鮮人의增殖率이만흠은 朝鮮이日本보다資本主義의發達이 아직幼稚함으로因함은勿論이오 가튼朝鮮안人口로도 近代發達한醫術이一般에게利用될들빨어 日本人보다朝鮮人의增殖率이만허질것은分明한일이다 그러면 이增殖하는人口를支持할만한朝鮮人의經濟狀態는엇더한가 朝鮮內의耕地面積은一九一二年에二百八十四萬餘町步이든것이 一九二四年에는四百三十二萬餘町步가되어約一倍半의增加를보엇스나 그동안의日本人의耕地所有面積은十五萬六町步에서 六十餘萬町步로加速度로增加하야 約四倍나增加하엿다 黃海道의鳳山 載寧 慶南의晉州 咸安湖南의金堤 萬頃等地의沃野良畓은 지금누구의손으로 돌어가고엇는가 朝鮮人의主要產業인 農業이 이러케든 하물며 다른商工業에잇서서랴 破滅로써거가는 朝鮮人의經濟는 增殖하는人口와 逆行하여간다 그結果는 반드시巨多한 人口를밧그로放出하지안흐면 안되게된다 그리하야 統計에나타난바에만依하여도 日本으로나간者三十萬에갓가우며 其他海外로移住한者百萬을넘기고잇다 더욱이移住의傾向은 年年이增加하야마지아니한다

四

이와가티 生活의根基를빌코 樂土를떠나 流離漂泊하는白衣族은 그安住할곳이어데이냐 山되어平野가 넓고넓어도 列强이角逐하는不安地帶임에야 어이하며 물건너工場이만키는만흐나 勞働市場에그나라人口도오히려남음에야어이하리오! 그러나鄕土에빌려오는計劃的移民은增加하야마지아니한다 一人의移民은 五家의先住民을放逐하고도남음이잇다 土地改良과產米增殖計劃이 비록朝鮮의發地를開拓함에效果가업는것은아니지마는 朝鮮人으로서의그業利得度가엇더할는지? 土地의資本化와朝鮮人의 生活難은함께並行할것은 疑心업는일이다 이러듯朝鮮人의經濟生活의沒落은 無產民族으로서의意識을굿게하며先進國의無產階級과運命을함께하고잇다 아니 보다더窮迫한저희들의生活難은 現下社會組織에 굿세인改革을要求하게된다 무서운體驗은 淺薄한常識을排却하고 眞摯한科學에눈뜨게만든다

## 安國軍軍事會議 總攻擊을決定

(北京二十六日發) 昨二十五日의安國軍最高軍事會議는畢竟兩三日中에河南京漢沿線의全線에亘하야總攻擊을하기로決定하엿더라

### 河南奉軍攻擊開始

‖(奉天二十六日發) 楊宇霆氏로부터二十六日中國側에達한電話에依하면河南에在한奉軍은今曉三時부터一齊히南軍에對하야總攻擊을開始하엿더라

### 奉軍蚌埠奪還說

‖(東京電) 藤田濟南領事로부터外務省에着한確報에依하면蚌埠는二十四日完全히山東軍에게奪還되엇는바此는河南省의奉軍의來援과孫軍이蚌埠側面及背面을牽制한外닭으로南軍은退却하야濟南도平靜에돌아가고避難者도漸次回復되는中이라더라

### 奉天軍郾城奪回

‖(北京二十四日發) 安國軍總司令部는河南廳에서奉天軍은二十一日郾城을奪回하엿다發表하엿더라

## 日本濟南出兵에 抗議키로決定 ◇……南京政府에서

(上海二十六日發) 南京政府는日本이濟南에派兵한다는報道를接하고伍外交部長으로부터抗議를提出하기로決定하엿더라

### 濟南近郊避亂民 十數萬殺到

(天津二十六日發) 京漢津浦兩方面은昨日以來큰變化는업스나二十五日濟南으로부터到達한慈善協會의情報에依하면濟南近郊에는繼續하야十數萬의避難者가到着하는바多數는飢餓에울어慘狀이極度에達하엿더라

### 南北兩軍配置

(上海二十五日發) 漢口二十五日發電에依하면廿二日南軍은淮城을占領하고唐生智氏는目下駐馬店에在하며何健氏는信陽에잇다奉天軍은許昌外지南下한後吳佩孚、張學良間의妥協이成立되어奉軍은黃河에退하얏는데許昌에서敗退한것은吳佩孚、田維勤軍인바北軍은南陽、許昌、周家口의線에잇는듯하더라

## 共產黨討伐令 蔣介石訓話一節

(上海二十六日發) 蔣介石氏는二十四日部下를모흐고訓話할때에國民政府는近近武漢共產黨에對하야討伐令을나리어共產黨에壓迫된忠良한國民黨員을救하지안흐면안된다고語하얏더라

### 芳澤公使歸國

(北京二十五日發) 芳澤日公使는來六月六日天津發、長安丸으로歸國하리라더라

## 不信任案提出하면 多數로否決할터 英勞働黨政府不信案提出?

(倫敦二十五日發) 倫敦『아코스하우스』搜查事件에對한英政府의英露國交斷絕聲明은英國政界에異常한緊張을招來하야勞働黨은不信任案提出의擧에出할것은疑心할것이업는바自由黨은勞働黨과同步調를取할模樣이나現在英下院各派勢力은

| | |
|---|---|
| 保守黨 | 四一三名 |
| 勞働黨 | 一五一名 |
| 自由黨 | 四○名 |
| 無所屬 | 五名 |
| 其他 | 六名 |

으로保守黨은絕對過半數를占하엿슴으로多數로서否決될것은確實하더라

## 英國의自掘墓穴 勞農機關紙의 國交斷絕批評

(莫斯科二十五日發) 英露國交斷絕의危機에際하야勞農機關紙『이스벳차』紙는同問題에對하야社說로써의責任은第一英吉利에잇다何故오하면勞農政府는會往부터英國에서不滿히역이는點에對하야交涉을開하고解決할意思를屢屢히表하엿스나英國은此手段을履行치안코突然英露關係를斷絕하려고함이다또한英國의如斯한態度는自身이그墓穴을掘함이라고語하엿더라

## 張宗昌妾十四人 天津에避難

(天津二十六日發) 張宗昌의第一夫人은同氏妾十四名과共히七十名의護衛兵에護衛되어二十五日午後濟南으로부터避難하여왓스며또直魯軍高級幹部家族도前日來繼續하야來津中이더라

## 보로진夫人 死刑乎 政府顚覆朝憲紊亂罪

(北京二十六日發) 『보로진』氏夫人以下의豫審은終了되엇슴으로近近公判에附할터인바罪名은政府顚覆朝憲紊亂임으로或은死刑을宣告할지도未知라고하더라

## 盈德江口港 英明學院曙光

盈德郡江口港英明學院은近年에經濟困難으로存廢가問題되어잇는바今番春期부터當地靑年會에서引受하야明年春期外지無報酬로教授하게되엇는데이에贊同한學父兄及洞內有志는百餘圓의經費를醵出하야校舍를修理하기로하엿슴으로明年春期부터完全히進行하게될터이라하며無報酬로教授하는이는李漢翼、黃德柄君이더라(盈德)

## 平北道議員 不正事實曝露! 賂物로산不正投票 ◇寧邊郡에서發見?

平北寧邊郡民選道評議員全濬根氏는投票數가八十餘點의多數를占하게되음으로그當時에도裡面에무슨黑幕이나잇지안혼가하야자못非難이러가되어오든바近間漸漸그가不正運動事件이曝露되어온다는데이제그一部執證한要件을보다면該邑南新峴面協議員金溶獻은銀項水鐵硐竹한벌과銀匙箸一具를該面協議員吳麟模의紹介로밧고全濬根을投票하여주엇스며面面協議員崔應洙는全濬根의近戚인全甘適이가民曆二卷을주면서全濬根의名義로投票하여주기를懇請하다가投票當日을迫하여는面協議員九名에게酒肴를設備하여노코銀匙箸各一個式을每人에賄與하면서懇請하야投票케한것을該崔氏는自白外자하엿다하며獨山面協議員金東允氏는能稀一件을引受하고全濬根을投票하여주엇스며그밧게도賂物을贈與하고運動한것이만흔모양이라더라(寧邊)

## 元山‖ 魚商組合으로 漁員相助會 名稱을變更

元山漁員相助會에서는今廿四日午後二時부터府內上洞三成運送部內에서春季總會를會長崔成洛氏司會로열고庶務趙炳夏氏의前會會錄朗讀 經過報告 收支決算報告가잇슨後從來의會名인漁員相助會를元山魚商組合으로變更하자는案을附議하야滿場一致로可決하고同時에同組合第一回總會를來廿八日午後二時부터前記場所에서開하고規約通過와任員選擧를할터이라는바左의規約起草委員을選定하고同組合에서는端午佳節을卜하야元山民衆脚戲大會를開催하기로決定하고同四時半頃에閉會하엿더라(元山)

◇規約起草委員 韓正先 李圭宣 趙炳夏 李在春 外二人

●普校女訓導의慈善 金山郡龍安面公普校先生朴蓮姬女史는同校六學年林英愛女生徒의學資를昨年부터負擔한다하야一般의稱讚이藉藉하다고

## 黃州의八萬農民 團結機關으로 黃州農民組合創立 農民敎養充實이目的

온갓抑壓과不合理한事情에서울어도나와에도부터지못하고半萬年의긴歷史를피눈물로그린朝鮮의農民그中에도黃州의無產大衆八萬餘名을爲하야先祖의怨恨을伸雪하고더욱이現實에모든制度를否認하며시들어가는農村文化와思想啓發을目的하야二十六日午前十一時에黃州農民組合創立總會를黃州邑書齋講堂에서開催하엿더라(黃州)

## 第二回 慶東記者大會開催 廿八九兩日間

來廿八九兩日間慶北浦項에서第二回慶東記者大會를開催할터인바新新講演도잇슬터이며벌서부터盛況을豫期한다더라(浦項)

## 四月中‖ 城津貿易高

城津港의四月中移出入의貿易狀況은移出品大豆十二萬七千四百廿五圓을最高로合計十五萬九千八百二十六圓이오移入品은綿織物十七萬三百四十二圓을最高로合計四十二萬三千三百五十四圓이더라(城津)

## 望祥靑年 修養團創立

去十一日有志靑年諸氏의發起로江陵郡望祥學校內에서臨時議長金振謨氏司會로望祥靑年修養團創立總會를開하고主義綱領과規約을通過한後左의役員을選擧하엿더라(三陟)

團長金振謨 庶務韓尙愚 文藝閔丙學 體育金炯度 顧問李光默

## 通俗講話演藝 盛況裡에終了

通俗教育衛生普及의講話演藝大會는論山公普校少年部後援으로去廿一日午後八時에朴鍾元氏後庭에서同校長大西氏의開會로開催된바聽衆無慮千餘名에達하는盛況을일우엇더라(論山)

## 安東春蠶 萬枚突破 掃立枚數

安東郡農會에서今年度春蠶種을郡內各面에配給하야掃立한現像을調査하면蠶種掃立한數가一萬一千一百十七枚에達하는增加를보엿스며去年에比하야도近一千枚를增加하엿더라(安東)

### 春蠶發育良好 產繭五千石을 豫想한다고 深津產業技手談

今年度安東郡春蠶種掃立의成績은別項報道와如하야全朝鮮的으로郡別에對하야는第一第二에遜色이업거니와此에對하야安東郡農會蠶業技手深津氏는如左히말하더라(安東)

一掃立에速한것은五月十五日晩遲은五月十七八日晩遲는五月廿日頃으로發生이總히良好하야振早한것은二齡、二日之間이오普通은一齡催眠中(五月廿四日現在)으로經過가頗히良好한데本郡中最히蠶室의設好한곳은陶山面及綠轉面으로서掃立枚數가一千餘를突破하야一層好績을豫想하엿스며本春의產繭豫想額은五千石이나되겟다고云云

## 順天住岩‖ 靑年團期成 參會員百餘名

順天郡住岩面에서는面內有志諸氏의發起로廿二日當地廣川公普校內에서住岩靑年團期成會를열고臨時議長金鶴八氏의司會로開會한바會員이百餘名에達하는盛況이엇고趙玉鉉金琮熙崔昌秀諸氏의感想談이잇섯나자이어會則通過와經過報告를마치고無事閉會하엿는바任員選擧와討議事項은如左하더라(順天)

◇任員‖會長金鶴八 副會長趙性模 顧問趙直鉉外十三人 委員吳東鎬外四十九名
◇討議‖會議持方針의件

## 牧島沿岸一帶 寫眞撮影嚴禁 去廿三日부터揭示 ◇海軍省命令으로

釜山府牧島沿岸一帶는東三洞으로부터釜山牧島間海峽外지周圍約三十里가량인要塞地帶가됨은勿論對岸인南濱町外지海岸地域을定하고要處에看板으로揭示하야日本海軍要塞地帶가됨을嚴示하고牧島古碑山以南에는要塞地帶의標石을備置하얏스며去廿三日부터撮影을嚴禁하엿다더라(牧島)

## 一新女高普 寄付金問題 目的變更할때承認 밧지안헛든것이새닭

晉州社會的一大暗礁인晉州一新女高問題는複雜多端한內容과紛糾狀態임은累次報道한바어니와去十六日理事會가開會中에一大修羅場되어社會의物論이더욱沸騰되엇는데去廿四日이期日인同校非難의焦點인未拂込寄付者에게支拂訴訟을釜山地方法院晉州支廳에서原田裁判長審理下에同日午前十時에開廷하엿는데寄付者側崔演國氏代理下志榮辯護士는寄付者들이元來一新高等普通學校에寄付한것이아니라고辯論하고同校가女高로變更될때何等의寄付者에게承認바든일이업다고抗議하야同校訴訟代理姜潤永氏는寄付行爲에비추어그럴必要가업다고答辯하엿는데原田裁判長은文이어대잇느냐고하야學校側은承認안바다도關係업다는그런明答에窮하엿스며原田裁判長이그承認안바든理由書를提出하라하고午後一時에閉廷하엿는데寄付者側이理由로抗議하는結果는同校運命에致命傷을주리라하야一般은注目不意한다더라(晉州)

## 名稱外지고틴 高靈伽耶俱樂部 ◇三二團으로

高靈伽耶俱樂部에서는去廿二日午後八時高靈靑年會館內에서革新總會를開하고權正浩氏의司會로開會하야各部經過報告를마치고鄕春澤氏의熱辯을비롯하야更新的活氣로나아가기爲하야綱領及規約과名稱外지改正하기로各其討議한後左의委員選擧와決議를하엿더라(高靈)

◇委員‖宋戊坤、權正浩、兪戊龍、李炳直、李龍九、兪鳳見
◇決議‖組織體變更과綱領規約改正의件 會員整理는年齡十八歲以上廿五歲以下의靑年으로團結하야爲先自體의修養을基本으로한後戰線에突進하자는目標下에서三二團이라고改名 革新紀念講演의件 南鮮庭球大會開催의件 金末牧에關한件(收益委員 李判祚、金光世、李敏直)



◇新昌아! 이러나거라 東天이붉어왓다 曉鍾이亂打되지도이미오랜때 왜! 너만은昏睡狀態에잇느냐! 남들은長足活步로活舞臺로躍進하며世上의舞臺는開幕되엇는데 너는何故로잠자고만잇느냐! 고개를들어世界를洞察하라 남들은 無盡히奮鬪努力하지를안는가 唯獨히너만은 尙今도 鼾聲이요란하다 覺醒하고東天을바라보아라!

◇新昌아! 너는東海岸의屈指되는貿易港의하나이아니냐 北靑과共以北都市의 關門이아니냐! 너의胸許에는數千의生靈이生存하지안느냐! 覺醒하라新昌아 儼石가티平常冷寂한狀態에만잇겟느냐!

◇新昌아! 너의胸許에抱擁한數千의生靈이모도가使命머昏睡病患者이냐 그럴理는업스리라 너의背後에는燦爛한歷史가잇섯고稀微치만한功도잇다

◇자 금으로부터數年前全朝鮮的으로各處에雨後竹筍가티思想團體가蜂起할때 우리新昌에도繼氣잇게靑年會가萬歲聲裏에成立하엿다 生活過程으로나事實方面으로나 理想的이엇고 活氣가 濃厚하여 「유―토피아」를憧憬하기에넉넉하엿다마는 一朝一夕에그形跡은五里霧中에消却하고畢竟은痕跡조차行方不明이되엇다 아! 哀惜하다 新昌아!

◇新昌아! 勞心할것이업다 過去는過去로埋葬하고目前에失敗를參考하며獅子奮迅의氣勢로나아가자! 移山運河도우리의能事이어던 一時의昏睡이겟느냐! 順境에서勇進하자! 逆境에서奮鬪하자! 이것이우리우리의唯一한使命이며義務일것이다 (松月浦)

## 地方紹介 16 端川郡 其三

### 自由平等思想 清廉勤儉

### 風雲을叱咤

回顧하면저雄中의雄으로兵을用함에神과如한尹瓘將軍이한번일어나 風雲을叱咤하면北陲의全土가忽然席捲하고諸族이來하야 馬前에跪하엿다 天性의英雄兒는龍이날에를어듬과 如하야 天下를睥睨하엿다 壯士峯는이尹瓘將軍이 破竹의勢로乘勝長驅하야北胡女眞을攻하야吳林金村(지금端川)에至하엿슬적의遺跡이다 邑誌에依하면郡建置沿革에는 本吳林金村久爲女眞所據高麗睿宗二年尹瓘逐女眞築城置福州防禦使四年撤城以其地還女眞後沒于元稱禿魯元悉匿王時復之王禑時改端州按撫使라하엿고 同壯士峯의記錄에는在道磨山下高麗侍中尹瓘逐女眞登其上犒其軍道光庚寅其後裔尹公際大來知本府時竪碑閣이라하엿다 以上의記錄에依하면 壯士峯는

### 尹瓘將軍의

赫赫한武勳을後世에永遠히傳할表로잇슨것이다 어떠튼壯士峯는 우리地方에잇서서 歷史的敬愛의的이다 世世우리靑年의피를끌케한다 그無言의속에주는 訓戒은 決코적지안타 壯士峯는우리地方의貴重한寶物임에 틀림이업다 그러나春風秋雨五百餘年經過한 오늘날은이미經過가오랫다 枯木寒林蕭條落莫이다뜻잇는者는實로

### 今昔의感이

不無할것이다 처蒙下에흐르는 냇물은 비와變함업것만 江岸斷崖에깃들이는어엽분水鳥는無心치안흔련만 無心하고不肯할손우리이다 우리는엇지하야 貴重한寶物을파무더엿는가 엇지하야壯士峯를 도그리드물든가 貴重한寶物의 넷이야기 누가서傳해줄년가 이것이또한뜻잇는者의큰恨이아닐수업다 우리朝鮮靑年들아 祖先의偉人을차저라 아니어머의偉人이고또는現代고將來의偉人임을勿論하고偉人을차저러나그것은

### 祖先의偉人

을자랑함에잇지말고네歷史의學者될을目的함에잇지말고偉人을다만 崇拜함에그치지말고그로부터感激과教訓을바더 차저라내가壯士峯에 차저어든바 教訓과感激은決코적지안엇다 讀者諸氏! 五百餘年넷일을秘藏한壯士峯의寒月은 나에게尹瓘將軍의넷일을말하는好個의伴侶者엿다 그래서생각을멀리五百年넷적에달려서 나를이저버린때에고

### 初春의寒月

은 나와寒寒소리업시흐르는江水에추엇다 이追憶은나의머리속에 그寒月과맑은江水와가티淸明하게印하엿다
三、그네의尊貴한自由平等의思想과 淸廉勤儉의氣風

### 自由平等의

世界史를閑讀한者는 누구나所謂文化的社會에 奴隷、農奴、公民等의制度가잇지안흔일이업슴을보앗슬것이다 그러나 나는이에文化人으로서 그러한制度에觸하야疑惑이업시 우리人類史上에汚點을바하는 純然한自由平等의 光榮을有하엿다(계속)

## 雄基基點의 國境鐵道는 釜山에다음가는大規模 收用令과農民恐慌

雄基를起點으로한國境鐵道가今年부터起工된다함은世上이다아는바어니와 이鐵道의當地停車場과線路豫定線으로서 將來繁昌과暴騰될것을豫想하고白鶴洞과松坪洞一帶에亘하야以今春부터土地買賣가旺盛하야 以前에는每坪에二三十錢에不過하든것이最近에는一圓二三十錢에外지暴騰되엇스며近日에는土地買收者들과 紹介業者들의大活躍으로當地方의土地賣買가遞히頻繁하는同時 어머음이停車場과線路에該當될가하야土地買收者와一般地主들의會合이매우頻繁하엿더니 極히秘密에부처온停車場의數地와線路豫定線에對한實測圖를去廿三日午後부터該地俱樂部에서鐵道關係地主들을會合하고鐵道局에서發表하엿는바停車場數地로要할鐵道用地가廿三萬餘坪에達하야朝鮮에서는釜山에버금가는큰停車場이되리라는데 이것이公開되매或은喜色이滿面하는地主도잇고或은落心下寓하는土地買收者도잇서場內에는喜悲가交至하는光景을呈하엿는데 이鐵道로因하야白鶴、松坪、龍水의各洞에서土地收用令으로犧牲될農民家屋도三十餘戶에達하리라더라(雄基)

## 高靈、三二團 事業部署決定

三二團에서는去廿二日午後十時高靈靑年會館에서第一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의事務分掌及決議가잇섯더라(高靈)

執行委員長宋戊坤 庶務部委員權正浩 學藝部委員兪成龍 運動部委員李炳直 社會部委員李龍九 少年部委員兪鳳見

◇決議
一、紀念講演會開催의件―來六月四日에紀念講演會를開催하기로하고演士及演題는如左

朝鮮民族의活路 宋戊坤
우리는朝鮮靑年이다 李龍九
힘쓰라―――― 兪成龍
未定 李炳直
同 權正浩

一、南鮮庭球大會開催의件‖每年伽耶俱樂部主催의南鮮庭球大會는本團에서責任을負하고來七月卅、卅一兩日間으로開催
一、團報發行에關한件‖申鉉休 朴桂三 趙容淳 白南柱

## 黃州體育協會 創立紀念運動

去廿一日午後四時黃州郡에잇는各官公署를비롯하야官民有志各靑年會代表者들이黃州郡廳會議室에集合하야一般에게體育을獎勵할目的으로黃州郡體育協會를組織하고各部任員을選定하며廿二日에는當地普通學校그라운드에서創立紀念大運動會를開催하엿는바一般選手들의各種競技가圓滿하게進行되엇더라(黃州)

## 外西公普校 開校祝賀會

尙州郡外西面公立普通學校는昨年十一月에竣工되어授業하는中인바該校新築落成祝賀會는來廿九日午前十一時에該校構內에서擧行한다더라(尙州)

## 地方運動競技

### 西岸一帶 公私聯合 大運動會 鶴林校主催로

平南龍岡郡海雲面私立鶴林學校에서는來一日에同校主催로西岸一帶의各公私立學校生徒를聯合하여海西地方初有의聯合大運動會를開催한다는바方今準備에着着進行中이며大會場所는同面龍岩里陸軍航空隊鍊習地라더라(廣梁灣)

### 十對六으로 球友團優勝 南鮮庭球經過

旣報‖高敞靑年會主催、東亞、中外、本報三支局後援으로去二十一日午後二時當地高等普通學校코―트에第一回南鮮庭球大會를열고李世鳳氏의開會辭를비롯하야第一回豫選으로莖浦軍相對高敞高普師範으로비롯엇는데觀客은定刻前부터人山人海로大盛況을일운가운데決勝에全南羅州軍과高敞球友軍이接戰되어南軍의優秀한技術은莫上莫下에兩便應援隊의一般觀衆을極度로興奮케한中에十對六으로優勝은高敞球友軍에歸하엿더라(高敞)

## 遮湖初有의 講演會盛況 公普同窓會主催로

咸南利原郡遮湖港에잇는遮湖公普校同窓會에서는去十七日午後七時半부터同大講堂에서金亨璣氏의司會로左의各演士가登壇하야各各熱辯을吐하얏는바立錐의餘地가업시聽衆이殺到하야遮湖初有의盛況裡에閉會되엇더라(利原)

無學은人生의最大不幸 金炳厚
吾人의將來와理想 全元淑
우리들의行할道 倉興房嚴

## 端川豆彥台里 少女學院創設 革新靑年會主催로

咸南端川郡豊貴面豆彥台里明東學校는創立以來六七星霜에男子만敎授케되든바去八日에當地革新靑年會幹部及有志靑年들이本里豆彥峰上에會合하야小女의敎育에對한講究를講究한結果該革新靑年會의主催로同會館에서去廿一日부터開院式을擧行하엿는데志願生이二十餘名에達하엿스며沈孝俊李柄睦兩君이無報酬로가르킨다더라(端川)

## 安城軍優勝 京南庭球大會

京南鐵道會社主催인同鐵道沿線庭球大會는去廿二日溫泉驛前코트에서大盛況裡에開催되엇는데十五團體三十三組가參加한中安城庭球俱樂部李相稙淺野弘組가優勝하엿더라(安城)

## 鎭川公普修築 千八百圓으로

忠北鎭川邑內公普校舍는頹落顚覆의危險이잇슴으로上學키不能하야緊急히學父兄과有志諸氏가集會하야千八百圓의修繕費로決議하기로하고一面으로寄附를募集하야委員若干人을選定하여一面으로收金하고一面으로는工事에着手하는바有志諸氏는今月末日內로許諾한寄付金完納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鎭川)

## 吉州大運動 端午日부터四日間

咸北吉州郡에서는商務會及靑年會의主催와東亞中外本報三支局後援으로例年과가티陰五月五日端午節을當하야市民大運動會를陰五月五日부터八日外지四日間吉州牛市場에서行한다는바當日은大牛一匹白米廿俵木洋其他各種으로例年에比하야特別히豊富하다더라(吉州)

## 少年庭球大會 振威北面에서

振威郡北面靑年會에서는少年庭球大會를來六月五日에開催한다는데場所는振威公普校校庭이오參加申請은六月二日外지振威郡北面靑年會에서資格은身長五尺三寸以下로抽籤은五日午前十一時이오選手組數는每團體에五組式豫定이며勝負는五回예입이더라

## 地方集會

●城津女子靑年會幹部로서多年間會務와城津婦女夜學講習所에勤務가만튼金容光女史送別會‖金容光女史는今般自家로招聘되엇슴으로同靑年會에서는去廿一日夜에劉今鳳女史家에서送別會를開하엿더라(城津)
●洪原靑年會定總‖來廿九日午後七時半부터市內漢商明學校講堂에서第十回定期總會를開催한다는바重大한問題를討議하겟슴으로一般會員은만히參席을바란다
●端川威城靑年會定總‖組織된以來一年間曖昧狀態에잇섯든바이에그간幹部諸氏의活動으로去廿二日午後一時부터當地天道教會內에서定期總會를開하고會務報告와다시新事業決定會員整理會則改正任員選擧를行한바會員은八十七名에達한다고(端川)
會長李承賢 副會長金寶淑 總務金贊 文藝部朴乃永 事業部韓利道 運動部朴龍陽 書記三名 會計三名 司察二名

## 地方人事

▲文化公普校 黃海道信川郡文化公普校李淙淡 禹龍燠 兩先生引率로生徒一同은月山探勝次昨日歸校(文化)
▲金基鉉氏(濟津實業家)廿一日來雄(雄基)
▲江景商業學校三年生 四十名去廿二日午後十二時北行車로安東縣方面에
▲金鳳俊氏(韓美金融組合理事) 平安北道理事會에서幹部中去廿四日辭任

## 地方漫筆 農校期成會創立 固城 一記者

人間은衣食住等本能的慾求以外에人類進化의原動力과通貫關係를가진學藝가잇서야한다는것은教育學的必要로업는바이다 하물며現下朝鮮民族으로서 더욱이鄉村의農民階級으로서는 배워야할것이며 가르켜야할것이다 그리하야社會의一員民族의一員으로서自己의責任을다하게하고 또한各自의權利를發展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世界資本主義가激度에達한此際에如何한民族國家를勿論하고此에相應한敎育機關의普及과發達을보게됨은時代에둔것이다 朝鮮의그것은多小間進步되얏다할수잇다 그러나朝鮮現下敎育의制度機關內容等이民族으로서階級으로서엇더하다는것보다도 根本的矛盾이잇는것은餘論할餘地도업는바이다 最近當局의教育政策으로三面一校의小學校機關과 各道에一個所式敎育機關이잇고全朝鮮을通하야數個의專門教育機關이잇스나 그것은現制度의必然으로都市中心敎育이며 또는有產階級의子弟를相對로되어잇는것도事實이다 우리固城은半島의南端에在한一郡으로人口八萬以上을包容하야外觀上으로는文化나其他思想으로나 他에比하야遜色이업는듯하나 其中에第一寒心한敎育機關의不備가最急의問題이다 公私立小學校機關數個校로外지年年卒業生이三百數十에達하야每年卒業期를當하면經濟의窮乏과交通의遠隔과 學校收容量의不足으로因하야 배우라하여도배울수가업는것은 果然枚擧키難한事實이다 單히頭腦를가진學齡兒童이나子弟를敎養못하는當面의父兄뿐아니라 우리固城一般社會에全責任이잇다는것은 오히려時代에는진 問題이다 此를憾嘆하든靑年은昨年中에 잇개社會團體의모임에서 모다實業學校期成을提議하야決議는나왓스나 實地執行에應하는者가업서決議만에그치고말엇든바 이것을본八萬의民衆은果然얼마나失望하얏스며 學問에枯渴된少年兒童은落膽의熱血이얼마나激動하얏슬것이냐 固城同志者四十餘氏는去四月廿五日에一席에서擧口同聲으로固城農業學校設立을絕叫하고同日卽席에서期成會發起會를열어 皆一致로激烈的努力을한結果有志者로서會員志願한者數百에達하야本月廿三日에期成會組織을完了하고誠心으로努力한다고한다 勿論이期成會의活動하는誠心如何에依하야 農業學校設置目的의成不成이決定될것이니 記者는爲先民衆과가티發起者인諸氏의熱誠을感謝하는同時에此期成會가비록數十人의發起라할지라도固城一般에게全責任이잇슬것이요 더욱有志로自處하는諸氏의責任이重大한것을各自가覺悟하야 自家의功利나勢力에만沒頭하야 愚然히또厭然히妨害를한다거나無誠意한傲慢的態度를가진者잇다하면이것은發起人의誠意를沒却한다는것보다도固城八萬民衆의公敵임은두말할餘地도업는것이다 固城農業學校期成會에對하야右와如한無誠意한分子나反對者에對하야는如何한迫害와干涉이잇더래도一層刷斷의勇氣로나아가기를願望하는바이다 더구나一般有志로서는固城農業學校期成會가創立된動機와經路를各各하야웃外지眞實한應援이잇기를바란다

◇桑港市在留同胞◇ 後列○黃熙燦、田得善、權一軍、金應健、文仁祥、朴履完 前列○車鍋周、尹琡淳、桂園、林昌模、金泓鍊氏等

# 北米學窓에서(二)

◇桑港市 通信員 尹琡淳

實로부러울만치 이네들은結婚을重大視하며 뒤아서家庭問題 子女教育問題에 無限의努力을 다합니다 各個家庭이다樂園이며天堂인것가틉니다 前부터家庭問題에만흔생각을하여보앗지만은此實로우리朝鮮家庭은더나힘것업시大概가理解가적으며慎重한考慮가缺乏한中 從來한餘習으로女子들을넘우나賤視하야왓나이다 이사람들은우리들과反對로

**家庭** 을絶對로重視하는同時에女子教育期家庭의主人公鑑成에最善의힘을써와고 뒤아子女를教訓함에도理想的으로하여왓기때문에今日의 米國이되지안앗는가?하고 생각을하엿나이다 그럼으로理解잇는 家庭教育과 學校教育이 잘聯絡되어나아가나이다 學校生活이始作될에뒤아特히公衆道德에만흔努力을다하나이다『와싱톤』이나『린컨』가튼偉人의歷史와그精神을우리들에일기쉽게印象깁게새여주며小學校運動場에는반드시每日自己나라國旗를달아恒常國家에對한觀念을집히게培養하나이다 이사람들의公德心은말할수업시잘

**修鍊** 된것은 會進行中에서각금엇을수잇나이다 例컨대한『크럽』이잇습니다 『칼려지』內에여러가지會와에自己意見에맛지안는일이잇드라도 多數可決이된後에는 쓰다달다할것업시 會를尊重히녀이는마음으로 協力並進하여나가나이다 뻐문에뒤공론이업스며 會의分裂이생기지안음니다

나는여긔에對하여 만흔늣김을가졋나이다 歐洲大戰終息以後로 太平洋을中心으로한 中國問題가緊迫함에뒤아 歷史班에는特히中國史를重한科目으로삼게되어 今番學期부터 커도始作하엿나이다 特히近日에中國革命으로 만흔興味를더하게되어 여러가지意見이續出되어 興味잇게배와나가나이다 日前에有名한 어느博士가 이『高氏、갈려지』에와서講演하는中

**中國** 파日本旅行에對하야의漢詩 唐詩와 日本의和歌에깁흔感想談을 한後 中國古代에對하야아뜨로時間을내여가지고講하여 聽衆의만흔늣김을주엇나이다 그러나우리朝鮮에對하여서는一言半辭도업더이다 지번學期敎育史時間에同班女子가 나에게뭇기를『코리아』가어데잇는가? 내가地理를배왓스나 極東에『재펜』과『차이나』와『초센』밧게업더라』하기에『초센』이即『코리아』라고힐업는對答을하엿나이다 事實로朝鮮을모르는이가만습니다 路上에단일뗴에는 兒孩들이각금『차이나맨』(中國)이라고만히부르나 그것은마치『되놈』이라고부르는것과가갓습니다 中國人은各處은都市에와서 洗濯과料理店을經營하고잇기째문에『차이나맨』이라면 三尺童子라도잘압니다

**勞働** 至上主義下에老少의區別이업시 힘써일하는것을볼 뗴에는 異常한늣김을갓게되옵고 老人에게對하야 늙엇다는고 하면 그처럼늣기실은말은업다고합니다 또이나라는果然禁酒國임니다 路上에한사람도醉한사람을못보겟스니 그結果는可謂富益富가안되려야안될수업슬것가틉니다 經濟問題에잇서서는넘우나發達이되어 몰오허뗌實主義에처우치는點이업지안습니다 쓰고십흔것이만습니다마는 時間이許諾치안사오니今番은 夏期放學뗌에黃石公園에가서서울리고 暫間우리나라學生들의近况이나올리고그치라합니다 모도十二人中今番六月에卒業할이가二人(車鍋周、黃熙燦)이며 明年六月에卒業할이가二人(文仁祥 尹琡淳)其他八人(權一軍 金致鍊 林昌模 田得善 桂園 朴履完 金應健)이온대今秋新學期에는 本大學校長尹山溫氏가平壤崇實專門學校長으로나가심과 또는퇴은都市에比較的만흔數爻가잇는뜻이不利한點이잇는듯한關係로 半數以上이다른大學으로

**轉學** 할듯함니다 情든校長과및親舊들을보내는 남어지몃사람의뭇寂하고 悵然한懷抱는禁할수업겟나이다

一九二七、四、二〇、 米國 桑港市에서

# 實行委員會開催 決議文作成送付

## 면영으로하려고대활동 ◇咸興電氣問題

함흥에잇는대흥뎐긔주식회사이뎐문데(大興電氣株式會社 移轉問題)에대하야는 본보에두보한바어니와지난이십일오후아홉시에시내정상병원(市內井上病院)에서실행위원일동(實行委員一同)이모히어 여러가지를토의한후실행위원 정규희、리리규외사인(鄭奎會李利奎外四人)을증선하고 다시지난이십삼일 오후세시에함흥면사무소(咸興面事務所)에모히어 위원회에서이미결의하얏든면긔면영(電氣面營)에대한규원서를함흥면장에게정식으로보내는동시에대흥뎐긔회사에통지하야뎐긔회사지뎜장고교(支店長高橋)와 동회사기사(同會社技師)를 회의석(會議席)에청하야노코여러가지질문이잇섯다는데삼군긔성회(三郡期成會)뗴에 회사로부터 돈천원을내여주고 이것으로써 대중압헤이미하여노흔공약(公約)을무시하고교지뎜장은뭇보자가잇승으로 본영회에대한 집책이잇섯스며 고실행치아니하고자하는회사와번사의사실을진달하여야할것이요나로써는 무에라대답할수업다』고함으로일반위원들은압헤와가튼의미의결의문에대하야 속히본사에보내어 확실한회답을 십일내로엇기를말하고 다시 함흥면장으로부터 책임잇는말이잇섯다는데 면장은 뎐긔면영에대하야 매우찬성하는 한사람인바 긔채방법과회사매수최뎌가액급기타(起債方法會社買收最低價額其他)에대한 의견을말한후위원으로부터뎐긔면영에대한연구도사긔관(研究調査機關)을면에서 속히두기를 말하엿다는데 위원회로부터 회사에보낸글은대개알에와갓다더라(함흥)

◇決議

一、大興電氣株式會社咸興支店은其發電所를契約에基하야速히移轉할事
一、電氣料는三割을低減할事
一、器具損料를低減할事
一、手數料를全廢할事
一、電球를無料로引換할事
一、從量燈에關한制限을撤廢할事
一、機械器具의販賣는實費로써할事
一、街燈은二電柱、一燈을無料로架設點燈할事
一、會社로서는親切第一主義를遵奉할事

# 綠陰端午節에 全鮮自轉車競技

## 당디선수들은련습이맹렬 각디로서는참가신청답지

## 仁川自轉車選手會主催

인천자뎐거선수회(仁川自轉車選手會)에서는 뎨육회장려하는동시에 견조선자뎐거 선수들의기능을 발휘하기위하야 인천률류청년회(仁川栗柳靑年會)와조선일보인천지국(朝鮮日報仁川支局) 후원알에에오는 륙월사、오량일간을두고시내화뎡(花町) 매립지광장에서 데이회 견조선남녀자뎐거경기대회(第二回全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를개최할터인데 이소문을 드른각디선수들의 참가신청이 벌서삼사십명에 달하엿스며 당디선수들도 밤낫련습이 맹렬하야당일경기의 장관을 일우리라는바더구나당일은 마츰 단오(端午)의 명절임으로일반관람인의경긔를일층더도우리라하야주최측에서도 당일의 유감이업시하려고대대뎍으로 모든준비에 분망중이며그리고아즉신청하지못한선수들의 편의를도읍기 위하야이십오일까지 작정하엿든 신청긔한을다시오월삼십일까지연긔하기로되엇더라(인천)

# 文氏事件과 青年會決議

부산진청년회(釜山鎭靑年會)에서는 경남관선도평의원 문상우(慶南官選道評議員文尙宇)씨의발검사건에대하야진상을됴사하야 상당한대항책을 강구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사일오전열시 동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열고 알에와가튼 결의를행하엿다더라(부산)

◇決議文

統營의金洪正侮族事件이勃發한지未幾에또다시釜山의所謂慶南官選道評議員인文尙宇는釜山鎭日新女學校職員室에서短刀를빼어들고闖入한리더욱亢然히無根의事實을虛構하야日文新聞紙로써盛히宣傳하야同族을中傷又는讒誣하고또엇던權力에藉勢하고官憲의背景으로우리의教育機關을沮害하얏다 그러면統營과釜山이비록場所는다르나財閥이오道評議員을職業으로삼는者로써그의行動이酷似하니우리는到底히看過할수업는立場에잇승으로 接踵하여생기는如斯한徒輩들을 모조리根抵까지撲滅하자!!

◇決議案件

一、五月二十八日下午四時에釜山驛前國際館에서文尙宇聲討講演會를開催할것
一、文尙宇拔劍事件眞相調査顚末을印刷配布하야社會의輿論을喚起케할것
一、釜山女青에對한件(釜山)

# 平壤府生死數

지난사월한달동안에 평양부내의사생(死生)의통계를조사하여본즉 생산은 조선인남자백십구명녀자가백두명 일본인사남팔명 녀자십팔명도합이백오십칠명이고사망수는일본사람남자가칠명녀자가십명조선사람남자가칠십삼명녀자가륙십삼명총수일백오십삼인데이를비교하여보면 출생수가사망수의근이배가된다고(평양)

# 鄕校財産으로 中等校設立計劃

## 수백년석은돈이비로소부활 ◇慶北儒林의美擧

경상북도(慶尙北道)유림단(儒林團)에서는 목하그도내에잇는향교(鄕校)재산을오백면일년에약 팔만원가량이되는데 종래에는이수입을 가지고 공자묘(孔子廟)에 제향을하는외에 유림(儒林)의 일부 시찰비에 충당할뿐으로 그남어지는 로인들의 개잡어먹는갑으로 다들어갓섯는데 금번경북 참여관고원훈(高元勳)씨는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총무장상철(張相轍) 씨등과협의하야향교재산의수입으로 중등학교를 건설하려고 계획하는일편으로 동지자를모흐는중인데 금번 구월경까지에는구데뎍으로결뎡되리라더라

# 新興青年同盟 第一回委員會

시내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에서는지난이십오일 하오구시 동회관에서제일회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열고 각부(各部)의책임자를선뎡한후 강좌반(講座班)개최에관한토의를 하려다가 림석한경관에게 중지를당하얏는데 다시상무위원회에서교섭하기로하고본동맹회원을디역별(地域別)로묘사정하기로하는동시에지난십오일뎡기총회(定期總會)에서결의된건의문(建議文)을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다음과가티건의하엿다더라

◇建議文

一、朝鮮青年總同盟으로하야금在來의無産階級意識的綱領을 固守하고 朝鮮青年大衆의反撥諸層總力量을集中시킬수잇는綱領을내걸게할것
一、青總의組織單位는郡、府青年同盟으로하고道에는行政機關으로道聯合會를設置할것
一、單一地域의單一團體制完成
一、組合主義的職業別青年團體의解體
一、各道青年運動者大會를召集하야青年團體地域別整理를時急히할것
一、年齡制限을朝鮮現實에빗추어全國的으로統一시킬것

◇各部責任委員

▲調査部 邊革 李明源 崔承寬
▲政治文化部 趙夢悅 玉洞泉 李東圻
▲宣傳組織部 權泰東 沈懿叔 張奎晶
▲教養出版部 朴慶鎬 金在龍 金鷺海
▲財政部 吳成武 宋海 金波

# 內衣안벗는다고 女生徒에黜學命令

## 신테검사때나만흔녀학생이 붓그러워내의를안벗섯다고 沒常識한訓導의怪態

함북종성군공립보통학교(咸北鍾城郡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십륙일에신톄검사(身體檢査)를 시행한바 동교삼년급(三年級)담임 김뎡렬(金貞烈)선생은 녀하생(女學生)의신톄검사를할뗴에 전부내의(內衣)까지 벗기고 신톄검사를 행하든중그중에도나이먹은 녀학생들은 붓그러움을 참지못하야 의복을벗지안흐려하매 전긔김선생은 로긔등등하야 선생의명령을 복종치안는학생에게는 도뎌히 교수할수업스니래일부터는 퇴학(退學)을하라는 엄명을하엿다는데 이 몰상식한 교사의 태도에대하야 사회(社會)일반여론이 놉다더라

# 隣人을亂刺

## 모히안사다준다고

전남강진군고군면도룡리(全南康津郡古郡面道龍里)한승여(韓承汝)(三四)란자는 대정십삼년에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문서위됴사긔죄(文書僞造詐欺罪)로징역일년륙개월의판결언도를밧고 보석(保釋)중에 도망하야 오늘까지 교묘하게몸을 피하고잇던바 섬상 가상으로 『모히』중독이되어 경찰당국의만흔 주목을 밧던중지난십일경에동리천성대(同里千成大)란자를 상대로 중상을내엇다는데 이제자세한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 천성대는『모히』밀매업자로 또한일반의 주목을 밧든중 전긔한승여가『모히』를 사다달라고 강청하여도 듯지안는다고 단도를가지고 란자하엿다는바 이웃사람의 만류로다 행히생명의관계는업다더라(봉영)

# 脫營兵의窃盜

함북라남(咸北羅南)에잇는데십구사단야포병 데이십오련대 데팔중대근무(第十九師團野砲兵第二十五聯隊第八中隊勤務)하는이등졸 스스목칭(鈴木淸)(三)이란자는 지난이십이일에 상관의압박이심하다고 병영을 버서나서부령군허통동(富寧郡虛通洞)려인숙림성녀의집에들어와말하기를지금우리는야외련습에련막(天幕)에는춥고숙박료를줄터이니잠을자게하여달라고함으로 주인은허락하얏더니숙박하는손

# 水中投身少婦

경남삼천포동리(慶南三千浦東里)량세환(梁世煥)의삼남 량성범(梁性範)(三)의처 김성녀(金姓女)는지난이십일 오후세시에귀신정(鬼神井)이라는우물에빠져죽으랴다가 부근 빨래실군의 구조로살아낫다는데 그작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 량성범은 결혼한지 십개월만에 나은자식을 자긔자식이아니라고 간부를차저내라하면서 무수이 구타하엿스나 김성녀는 평생에 원만한 가정을 일우기위하야예 이년동안에 무한한 고초와학대를 한결가티 지내든중지난이십일에도 무수한구타를 당하고 밧그로 쫏겨나와 공평치못한세상과 잔인부도한 싀가를저주하며 이세상을떠나고저하야 그와가티한것이라더라(삼천포)

# 運送途中에 郵便物을紛失

## 평남등디에배달되는우편물 一般은遞信當局을非難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각처로부터평남맹산덕천녕원(平南孟山德川寧遠)삼군에가는 우편물은 반드시 평양국(平壤局)을 거처 대동(大同)자동차부편으로떤달되는데 뻐뻐로우편물이 침수가 될뿐만아니라 불의의고장으로 연착이되어일반의비난이만타함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이일에는 우편물을실은 대동자동차부 데이십이호차는 평양으로부터 순천 신창(順川新倉)우편소에도착우편물을싯고오는도중에서 우편물을 뎃까지이려바렷다는데 이를아는 일반은 동자동차부는물론이요대신당국의무책임함을비난한다더라 (덕천)

# 同日一線에 兩人轢死

## 경동선에서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에 경동선(慶東線)서악역(西岳驛)을떠나 포항(浦項)을향하야가든일백이십오호(一二五)렬차가 울산(蔚山)사방(四方)사이를진행하자 마츰폭풍우(暴風雨)가일어나 잡지간지뫼을 분변하기가 어려울뿐만아니라 엇더한로인하나가 차질을횡단하려다가 긔차에 갈려죽엇다는데 이사람은 연일군연일면생리(延日郡延日面生里)에사는김도현(金道鉉)(三九)이라는바 경주디방법원에소송상관으로왓든자이라하며 동일오후일곱시사십분경에 동선 경주 동방(東方)불국사(佛國寺)사이에서김호(金浩)란사람이 치어죽은것을 그이튼날에 발견하얏다는데 자살인지도알수업다더라

# 三兄弟共謀하고 病母를山中遺棄

## ◇결국굶어주게만들어◇ 警察署는嚴重取調

웅긔경찰서(雄基警察署)에서는 본천사법주임(本川司法主任)이 계원(係員)수명과 내뎐공의(內田公醫)를대동하고 지난십칠일에 풍해면(豐海面)에 출장하야 풍해면송림동(豐海面松林洞)사는주선덕(朱先德)(五六)의 삼형뎨와 그들는 주인덕(朱仁德)(三九)과 그의 아우되는주의덕(朱義德)(二九) 주의덕의매부(妹夫)되는 허형(許亨) 네사람을 인치하여다 취됴하는중인데 그의내용을 탐문하여보면 권귀주선덕의친모(親母)되는방봉래(方鳳萊)(七二)는거금십오년전부터 정신병(精神病)에 걸려오다가 또한 몃해전부터는라병(癩病)에걸려 수삭전부터는 매우중태에 싸저오든바 그의자식들은 병든어미가 죽기를고대하여오다가 지난 사월삼십일에는 권귀주선덕의 삼형뎨와 그의매부허형등네명이공모하고그동리에서 동편으로 약오리가량되는 달암곡(達岩谷)이란산중에조고만 초막을만들고 온돌(溫突)도 업는 빈영에자리도업시 뭄인호로 자리를하고 병모(病母)를운반하여다가 감금하여 노후는 먹을것도갓다주지안흐며아니라자조가서보지도 안흔바지난십륙일경에 죽은듯한 그의참혹한 시톄가그초막속에서 발견되엇승으로그곳주재소에서는그병인이먹지못하야 굶어죽은 형적이 잇다하야 웅긔경찰서에 사연을 보고하엿승으로동서사법계에서 공의(公醫)를다리고가서그의시톄를 해부하여본결과 아사(餓死)한것이판명되엇승으로 즉시 권귀네명을인치하고엄중한취됴를계속하는중이라는데그부근동리에서는 그들의 불효막대한에 대하야비난이만타더라(웅긔)

# 數十萬財消費코 悲觀쓰테縊死

## 지식은업고돈조차업서서 쓸쓸한이세상에살수업서저 深戒할浮浪者의末路

전남보성군보성면옥암리(寶城郡寶城面玉岩里) 리종래(李琮來)(三)라든청년은 지난이십일밤에 그동리뒷산소나무에 자긔허리띄로 목을매어 죽은것을 그이튼날아츰에 동리사람이발견하얏는데 그는당디에서 굴지하는 디벌괴재산이잇는집 자뎨로서 생활이안일한만큼 새로운교육을바들긔회를일헛고 현대문화의과정에잇서하기쉬운허영생활에 허동지동하다가 수십만의재산은 한푼의여유가업시 모조리업서지매 각처로 표류하며 자연부랑의길을밟게되어 최근에와서는 모종의범죄로륙개월징역 삼개년간 집행유예의선고를밧고고향에돌아왓스나압흐로 생활할길은막연하고쓸쓸한이사회에 녯일을추억하면 친척고구를대할면목이업게되니 리해와 동정이업는이세상은 차라리죽엄의길을 취하는것이 낫겟다 하는비관쓰테 그와가티 자살을결심한것이라더라(보성)

# 自働車小兒轢傷

지난이십사일오전 열한시경에 달성군화원면 성산동(達城郡花園面城山洞) 길거리에서 금뎡 이뎡목이십사번디(錦町二丁目二四)자동차운뎐수 강칠암(自働車運轉手姜七岩)(三六)이가하물자동차(貨物自働車)를 운뎐하고 가다가동일전긔 시간에화원면 성산동리긔홍의둘재아들(花園面城山洞李基洪二子)강식(康植)(六)을치어일시는 피투성이가 되어인사불성이되엇승으로 응급수당을가한결과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나 원악중상임으로 치료에상당한시일이걸리겟다고(대구)

# 平壤에猩紅熱

금춘이래로 평양일대에 심히류행하다가일시침식되엇든성홍열(猩紅熱)은 지난사월부터 하로에 평균두명식 발생되어지난이십오일 현재부내 환자가이십삼명이라는바 사망자가 십이인에달하엿는데 부당국과도위생과에서는그예방책을강구하는중이라더라(평양)

# 四人組窃盜團

지난이십륙일 오전다섯시경 시내명치뎡(明治町)이뎡목팔십이번디추원(萩原)의집에절도수명이침입하야우육(牛肉)과자(菓子)『바게스』등을팔아도주하려한것을 주인이발견하고 곳부근파출소(派出所)에고발하엿스나여가는 커모다도망하엿승으로 이래범인을엄탐중지난이십륙일명치뎡부근을배회하는자칭시내인사동(仁寺洞)이백십오번디 추뎡규(秋貞圭)(二九)인사동(仁寺洞)일백육십칠번디한선호(韓善鎬)청주군오포면신뎐리(淸州郡五浦面新田里)사백사십칠번디 김순식(金順植)(三四)권농동(勸農洞)일백이십이번디리우영(李愚永) 동네명을 소관본뎡서(本町署)원이 인치취됴중인바 권긔네명은 일단이되어서 항상시내명치뎡이뎡목팔십이번디 동순래(同順來)소유 공가(空家)에 소굴을뎡하고 시내를 배회하는자들로서권긔추원의집에침입한절도협의자인듯함으로 계속취됴중이라더라(경성)

# 小兒轢傷

경남거창자동차회사합천뎡류소주임원롱(慶南居昌自働車會社陜川停留所主任李源龍)은합천에뎡류한자동차를가지고학교운동장에산보하려가서운동장에서노는학생리긋롱(李末龍)(九)을 치어중상을내엇는바중상당한학생은생명이위독

# 平壤에 食刀强盜

## 이십원강탈

지난달이십삼일하오열한시반경에평양상수리(上需里)박관화(朴觀華)의집에식도(食刀)를가지고들어가서 권귀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이십여원을 강탈 도주하엿든 식도강도 주소부뎡 박내선(朴內善)(三) 이라는 자는 부내장별리근처에서 지난이십사일아츰에평양서원에게데포되엇다

# 黑牛窃盜逮捕

지난이십일오후두시경에 충북음성(忠北陰城)경찰서에서는 절도혐의자두명을 인치하고 방금엄중한 취됴를 하는중이라는데 이제그 범인의 자백한바에의하면 그두명은모다 본적경북문경군동로면적성리(聞慶郡東老面赤城里)로서일뎡한 주소가업는 류흥룡(劉興龍)(四)과 황봉하(黃鳳河)(三八)로서지난십구일에경북상주(慶北尙州)동문밧그로약일리가량되는 동리에서 엇던자의검은항소(牛)한머리를절취하야가지고와서팔라고구십칠원에매매언론중에 마츰순회하던 경관이 그의행동이 매우 괴이함을의심하고 데포한것이라는데 불원간일건서류와함께추검사국으로넘기리라는바 이두명은 전일에도여러가지공모하고절도범을범한일이잇다고

# 錦山邑에虎害

전북금산군 금산면 중도리(全北錦山郡錦山面中島里)에 사는리풍년(李豊年)의집에서길으는도야지를 지난이십사일 밤중에범(虎)의소위가 분명하며 익일아츰에야 도야지를먹은형적이그근방들에서발견되엇다는데 인심이 매우흉흉하다더라(금산)

# 中毒者掃蕩

지난이십오일오전 여섯시경에 왜관경찰서(倭館警察署)에서십여명경관대가사방으로 허터저 모루히네소굴을 일일히수색한후 중독자로주목을밧던 남녀여덜사람을 검속하야방금엄중히취됴하는중이라고(왜관)

# 람파휘

▲지난이십일오후다섯시경황해도안악에잇는 기생 딸구명이 자동차를타고남도잡가단가게섯난봉가를불으며본뎡대로로돌아다니다가필경에경찰서신세를지엇다나▲아무리영업상을가진 기생이지마는 넘우봉다가 콩밥먹으면 그맛이엇솔걸!

# 演藝와映畫

# 『금붕어』撮影中 申一仙孃奇禍

[illegible]한강중류에서 촬영대의활동으로겨우구조되엇다고

廿五日午後漢江沿岸에서

이십오일오전열한시경에시내욱뎡(旭町)조선키네마에서는동회데오회작품인『금붕어』라는영화를촬영코자라운규(羅雲奎)씨를필두로한촬영대(撮影隊)가한강(漢江)연안에서『로케이슌』(野外撮影)을하고잇든중 외촬영(外撮影)을하고잇든중 일인지『카메라』압헤 서잇든동키네마의스타ㅣ인 신일선(申一仙)양의발이돌연히 밋그러지며 깁히가 약삼사척 가량이나되는물속에 빠저 자최를감추워버리고말엇승으로 이것을 본촬영대원들은 넘우나 의외에놀라 옹을마지못하야 일제히 물속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활동사진과 가튼 대활극을연출한결과 약오분가량이지난뒤에야비로소이미 정신을일허 엄으러진 동양을구조해내엇다는데 그부근일대는 구름가티모혀드는구경군으로인하야 일시대혼잡을 일우엇다하며의외의 긔화를당한신일선양은물을 만히먹기는하얏스나 시간이과히늣지안흔까닭에다행히생명에는관계가업게되엇다는바엿재든 얼마아니되는 조선의영화사상(映畫史上)에잇서서야외촬영중에 그와가튼사변이 일어나기는이번이처음이라겟더라

# 紀新洋行 復活封切

## 廿七日一齊히

시내 남대문통(市內南大門通)재등(齋藤)빌딩안에 사무소를둔 영화배급소(映畫配給所)긔신양행 (紀新洋行)에서는 동행데일회 수입품으로 미국유나잇뗏드『회사의 대작인『부활(復活)』은 이십오일밤에시사(試寫)를마친후 오는이십칠일부터일본인측은 시내황금관(黃金館)에서조선인측은 관렬동우미관(優美館)에서 일제히 봉절되리라한다

(사진은 위긔일발(危機一髮)에구조된조선키네마의스타ㅣ신일선(申一仙)양)

# 僧房悲曲

([illegible])

獨鵑 作 羅雲奎撮影監督 【16】

## 피난【避難】(一)

깁히숨에잇든 젊은사내가 머리를들엇다 그젊은사내의손이 영일의 온몸을흔드는 서슬에영일의피가 어줄어히 흘겻첫다 그의 어줄어운시선이 알에엇독에 자는듯누어잇는 은숙의 온몸을 더듬혓다

반만치흐터진 깜안머리미트로 돌어난 '보-얀목덜미로부터 회색당료알에서 구불거린 은숙의 전신에 영일의시선은 자자들듯하엿다 영일은 자긔시선에달리어 움쪽이려는 십팔관(十八貫)이나되는 자긔의 육데를뭇들기 위하야 자긔의가진 온갓힘을다하야 묵어운눈을감엇다

눈을감자 엇던긔억(記憶)한 모퉁이에서『녀자를 가차히하지마러라!』하는 새벽모긔소리가큰 날카로운 소리가 가늘게들렷다 이소리를들은 영일은 지금까지 감고 잇든마음의 눈을떳다

눈에비최이는것은분명히자긔시님해암선사(海岩禪師)압헤꿀어안저서무슨훈계를 듯는자긔자신이엇다

『녀자를 가차히 하지마려라 거긔에의승리가 잇슬러이니』

눈압헤나타난 시님은 앗가보다도 큰소리로 불으지젓다

영일은 자긔가셈차릴 나이를며은후부터 그시님의 단한가지의 훈계인『녀자를갓차이 하지마려라』든것을새삼스러히 들엇다 그리고 시님은『너는나에게그것을약속하지안엇느냐!』하는 소리를분명히들엇다

『너는이유혹을못이기겟느냐 누어서 못이길유혹이거든 문을열고밧그로 다라나라 피난을해라 캄캄한 한울을쳐다보고 다시생각하여라』

영일은 자긔마음에서 들리는이런훈계를들엇다

『그러나유혹을 익이자 수난(受難)을피하자』

그는눈을 불끈뜨고 황망히문밧그로 뛰어나왓다 비는어느새에 개엿는지 별로장식한 푸른한울이 놉직히 달려잇섯다

영일은 구름을달리는 바람에나붓기며 방향도업시언덕을 다름질첫다 비에씻기운 맑은바람은 마음을씻는듯시원하엿다

『아아나는이기엇다』

영일은 자긔도 모르는사이에 재뎡을 넘엇다 검은막속에쌓여 검어보이는 산봉오리 긴수풀방 향도업시 떠엿다 나엇다 하는벌레소리 ─ 이런것들을골가려 듯고보며 다름질처든 발길을멈춘곳은 원흥모를 절벽이엇다 어데서인지 쫄쫄쫄 흘으는새암소리가 들려왓다 그는귀를우에딥허주커안저서 반작어리는 별의 무리를바라보앗다

×

고요히 누어잇든은숙은 황망히 나가는영일의 발자최에 놀아뒤를돌아보앗다 반만치닷긴문사이로는 차차 멀리다라나는영일의발소리가 새여들엇다

『웬일일가 어데로가나아마변소에가는게지……』

이러케 생각하고 틈벌어진문을 꼭다처고 다시 자리에누엇다 그러나 한시간이지나도 영일은 들어오지 안흠뻐에 은숙은녀자다운 잔걱정이 물어올랏다

『어데를갓슬가? 변소에서야이러케 안들어올수야잇나?』

은숙은마츰내 밧그로나왓다 주막부근을 이리저리 차자보앗스나 아모데도영일의종적은 업섯다 큰길로나가서 캄캄한누리를 삶혀보니 은숙에게는 참으로걱정이되엇다 어려서 나야기로듯든 범까지가 생각낫다 자는사람들을 깨워서 차자라도 나스고 십헛스나 넘우경솔한짓이될까보아 좀더 가다려보기로하엿다 그래서다시 방으로들어왓다

뛰어나가서 안들어오는리유보다도그러케친절한이가무엇뻐문에 그러케황망히 뛰어나갓는지를 좀처로알수가업섯다 그러나 그런리유를알기보다도 어데로갓슬가가더욱궁금하엿다 또한시간이 지나도 영일은돌아오지안엇다 은숙은 걱정한드시 일어나서부억에서자는 주인을 깨웟다

▲海嚴禪師……尹逢春
崔榮一……朱三孫